

[교회탐구 포럼03]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인간은 일이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파악하고 알린다. 우리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보람과 좌절, 고뇌와 환희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그저 세속적인 돈벌이나 필요악, 성공의 수단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일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회탐구포럼의 세 번째 주제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다.



직장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영성

방선기(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 교수, 직장사역연합 대표, 이랜드 사목)

오랜 세월 직장 사역에 투신해 온 방선기 소장은 “직장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영성”을 청지기, 군사, 종이라는 삼중적 역할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직업인에게는 ‘흠어진 교회’ 의식이 필요하다(행 8:1, 4).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모인 교회’의 사명이라면, 세상의 일터에서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흠어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이다.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은 ‘홀어진 교회’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일터와 세상에서 분투해야 한다. 일터는 일하는 현장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일터는 갈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속성상 세상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일터는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의 사역지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즉,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청지기, 군인, 종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역할이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과 일터에서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교수,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임성빈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이 개인의 신앙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기업 환경, 윤리적 갈등, 전 세계적 추세의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분단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직장생활에 관하여, 둘째 분단에서는 가속화되는 세계화 현상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단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신앙과 직장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필자에 의하면, 신앙과 직장생활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체제, 사회제도와 같은 공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해야 할 문제다. 세계화 시대의 건전한 직업윤리는 외형적인 윤리규범이나 원칙을 제안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개인의 윤리적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직업과 일터의 윤리는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는 일터의 현실을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의 구성원들이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상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필자는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인이 되는 길에 대하여 신앙인다운 인격을 갖출 것과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윤리적 문화를 점검하고 직장 문화 변혁을 위한 과정을 수행할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신앙적 직업윤리의 실천 과정과 이를 위한 신앙 공동체를 제시한다. 일터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삶을 의미한다. 치열한 경쟁 환경과 녹록치 않게 변해가는 직업 환경은 한 개인이 신앙인으로서 실천하는 윤리적 노력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건강한 직업윤리와 일터 문화 세우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직장 내 구조악과 맞닥뜨리다

송인규(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개인적·공적 생활 영역 어디에나 미친다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재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업이나 회사, 직장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 활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학적 진술에 여러 형태로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의 공적 삶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의, 진실, 선의, 공정, 성실 등이 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개인적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윤리적 규범과 상반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직장 생활 중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에 발견되는 모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그 구조 가운데 있는 개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권해야 할까? 송인규 교수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마주치게 되는 ‘구조악’의 실체를 세세히 드러낸다. 직장 내 구조악이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현재 한국의 직장 현실을 염두에 둘 때 구조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시한다. 필자에 의하면 ‘직장 내 구조악에 맞닥뜨린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악과 치명적 피해 사이에 택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필자는 그 구체적 대응책으로 ‘잠정적 타협론’을 제시한다.

이것은 직장 내 구조악의 상황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도덕적 악을 택한다 해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서 구조악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잠정적’이라는 표현은 ‘임시성’, ‘지향성’, ‘점진성’을 함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잠정적 타협론이 직장 내 구조악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전략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라고 판정한다. 결론부에서 필자는 잠정적 타협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이를 토대로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보충하며 마무리한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업 세계의 진짜 문제에 답해야 한다. 급변하는 직업 문화 및 구조악과 더불어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 직업인의 정체성과 갈등,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변화무쌍한 직장 환경에서 날마다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애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용사들의 신앙과 삶에 교회탐구포럼에서 세 번째로 다룬 주제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의 글들이 도전과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